



교 무 금 : 9월11일(토)-9월17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김수천(스테파노)	7-9	정용경(골롬바)	9	박순희(로사)	1-12
이석규(알로이시오)	7-8	차일순(마리아)	7-8	최인석(다니엘)	9-10
이점순(미카엘라)	8-12	유옥련(아가다)	9-10	김경순(올리아나)	10
구상철(미카엘)	8-9	윤주국(알로이시오)	8-9	정규식(요셉)	2-6
송영성(베드로)	4-9	김종진(안토니오)	9	김정미(루치아)	9
박안홍(시몬)	9	강영순(올리엠타)	9	김광근(필립보)	9
이재연(카타리나)	9	노미선(요셉피나)	8-9	문선옥(제노비아)	7-9
노말숙(루시아)	9	김은미(클라라)	9	최영주(안젤로)	7-12
이병관(요셉)	9	윤혜성(요셉피나)	8-9	최이균(베네딕토)	8-9
임문자(루치아)	8-9	송계용(바오로)	10	이상국(요아킴)	9
최용훈(안드레아)	9	김병찬(바오로)	9	김종섭(그레고리오)	1-10
이창근(미카엘)	9	허정진(요셉)	9	하창용(바오로)	9
김상문(아우구스티노)	5-9	최창대(베드로)	9	박정숙(카타리나)	10
심상봉(사도요한)	9	신지연(마리스텔라)	9	김종근(요셉)	7-9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 2,790만원중 934만원 봉헌)					
정용경(골롬바)	9	박순희(로사)	완납	윤주국(알로이시오)	8-9
노미선(요셉피나)	8-9	노말숙(루시아)	완납	이병관(요셉)	9
최이균(베네딕토)	8-9	송계용(바오로)	10	이상국(요아킴)	9
김병찬(바오로)	9	최창대(베드로)	완납	심상봉(사도요한)	9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283명
			교무금		4,690,000원
			주일헌금		1,844,000원
			교구사업모금		323,000원
			성소후원금		200,000원

성당

성당은 하느님의 성소다. 그래서 ‘성당’이라고 한다. 성당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성체를 모셔둔 교회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공소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성체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할 수 없다. 성당은 전통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성전이다. 예컨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과 같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또 그 규모로 보아서도 큰 성당을 일컫는데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으며, ‘성전’이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다.

둘째, 주교좌 대성당이다. 이것은 한 교구의 중심 되는 성당인데 주교좌가 있는 성당, 즉 주교가 앉아서 가르치는 성당이란 뜻이다. 그래서 어떤 주교좌 성당에 가든지 그 지방 주교의 좌가 제단 한쪽에 놓여 있다.

셋째는 일반 성당, 즉 각 본당을 말한다. 본당 신부들이 관할하는 지방 교회당을 일컫는다. 넷째는 경당이다. 이것은 어떤 수도원이나 신학교 등 교회의 어떤 단체 전용의 성당으로 성체를 모신 성당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녀원 경당이면 수녀 이외에 일반 신자들은 그곳 경당에서 일반 미사는 참례할 수 있지만, 주일 미사는 참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노약자, 환자 등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교회 전통으로는 신자들은 자기 본당 아니면 타 본당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참 아름다운 사람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야’라며 멧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나긴 인생길의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받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못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당신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